



‘체육고’ 신설 제동… 교육청 “우선순위 검토”

도의회 업무보고서 전임 교육감 핵심 공약 재검토 시사
위미중 통합학교 구상도 불투명… 재정여건 변수 부상
‘제주4·3교육과’ 신설 신중 주문… “의견 수렴이 우선”

전임 교육감 당시에 추진됐던 ‘제주체육고등학교’ 신설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설 부지까지 확정적으로 제시됐던 만큼 도민사회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체육고 신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광수 교육감은 위미 지역에 체육고가 들어서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했다. 내년(현 시점에서 올해) 중 사전 기획 용역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앞서 김광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체육고 신설은 김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도교육청은 서귀포 남원을 위미중학교 부지에 체육고를 신설하고 위미중과 중·고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김종철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체육고 신설과 관련해) TF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 있지만, (현재)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협의체 구성 등이 구

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답변에 강동우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고의숙 교육감의 체육고 신설에 대한 의지를 묻기도 했다. 전임 교육감 당시 추진됐던 사안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현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은희 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은 “교육감이 문제제를 활성화하는 타 후보의 공약을 받을 정도로 (교육감 정책 과제에 포함) 체육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시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현 교육감 공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체육고를 그대로 위미중에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즉답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교육청 재

정 상황 등을 고려해 체육고 신설을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현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제주4·3교육과 신설’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정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4·3은 학생들이 반드시 배우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라면서도 “그런데 4·3교육과 신설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교육청 조직에서도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안에 4·3교육에 관한 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전남광주교육청이 미래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5·18 교육을 하고 있고, 과 신설 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헌절·주말 연휴 무덥고 가끔 비 날씨

제주 열대야 8일 연속 관측

제헌절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기간 제주에는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17~19일 대체로 흐리겠다. 정제전선의 영향을 받아 18일 늦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와 19일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나 당분간 최고기온이 31℃ 안팎에 머물고 최고 체감온도는 33℃ 안팎으로 올라 습하고 무덥겠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29~31℃로 예상된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29~31℃이며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

기온은 29~32℃가 되겠다. 현재 제주시 북부·동부·중산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는 지난 8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열대야 발생 일수는 제주 8일, 서귀포 8일, 고산 5일, 성산 4일 등이다. 열대야는 밤 사이(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제주시 북부·동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지역에 밤 최저기온이 27℃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평가 선정 53곳 중 제주 2곳 포함

제주한라병원 ‘재지정’… 제주대병원은 ‘신규’

제주지역에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곳으로 늘어난다. 제주한라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다시 지정된데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새로 지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 53곳을 선정했다. 이 중 제주에선 제주한라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등 2곳이 포함됐다.

이번 공모 평가에서 제주한라병원이 재지정돼 2011년 첫 지정 이후 15년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전국 의료기관 12개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전원되는 환자를 받아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거점 기관이다. 센터는 제주도·119구급대·지역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이송지점 개

정과 운영에 참여하고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권역 내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센터가 두 곳으로 늘면서 전문치료가 급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한다. 신규로 선정된 기관들 가운데 시설·인력·장비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하고 2027년 4월 30일까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의료기관의 보완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사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 2개소 운영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의 중증응급질환 대응체계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비양도서 뱀에 물려 병원행 제주해경·소방, 긴급 이송

비양도에서 10대 관광객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에서 관광객 A양(10대)이 발등 부위를 뱀에게 물려 출혈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양도 보건진료소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오전 10시 11분쯤 비양도 선착장에서 A양과 보호자를 태워 한림항으로 이동했다. A양은 대기중이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도서지역에서는 뱀 물림, 미끄럼 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정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희만기자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 기본권 보장 투쟁” 1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8개 이상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4곳 이상에 교

섭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제주지역 건설노조에서 전국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모두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헌법의 노동3권을堂堂하게 행사하고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는 날까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레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 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 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들 흔저 전화 주시면!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